

# 관심 낮은 교육감 선거... 유권자 68% “투표일 임박 결심”

교육감 선거 관심도 43%에 그쳐 언론·홍보물·주변 대화 영향 커 공약 중시 응답과 실제 선택 괴리 정책선거 정착 위한 보완책 필요



전국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들이 지난달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교육대전환 공동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이현진 기자

교육감 선거에서 유권자 상당수가 투표 직전 후보를 결정하고, 후보 선택 과정에서는 언론 보도와 주변인 대화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과 공약을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꼽으면서도 실제 투표 행태는 막판 정보 노출에 영향을 받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에서 지지 후보를 투표일 일주일 이내에 결정한 유권자 비율은 2022년 기준 68.2%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투표일 4~7일 전에 후보를 결정했다는 응답이 27.6%로 가장 많았고, 투표일 1~3일 전 22.5%, 투표 당일 18.1% 순이었다. 반면 투표일 3주 이상 전에 후보를 결정했다는 응답은 9.8%에 그쳤다.

이는 같은 선거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를 선택한 시기보다 상대적으로 늦은 수준이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투표일 3주 이상 전에 후보를 결정했다는 응답이 27.0%로 교육감 선거의 약 3배에 달했다. 후보 선택에 가장 도움이 된 정보 획득

경로로는 언론 보도와 후보 홍보물, 가족·지인과의 대화가 꼽혔다.

조사에서 TV·신문 등 언론의 보도·기사를 꼽은 응답이 22.4%로 가장 많았으며, 후보자의 선거공보·별호·현수막 등 홍보물 22.3%, 가족·지인과의 대화 22.1%가 뒤를 이었다. 반면 TV 토론회와 방송 연설은 11.2%, 후보자의 인터넷·SNS 선거운동은 4.8%, 인터넷 커뮤니티는 3.2%에 그쳤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다른 지방선거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관심이 있었다는 응답은 43.1%로 광역단체장(74.1%), 기초단체장(71.3%), 지방의원(53.1%)보다 낮았다. 특히 교육감 선거 관심도는 2014년 46.7%, 2018년 43.6%, 2022년 43.1%로 선거를 거듭할수록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중앙선거위원회의 이번 지방선거 유권자 의식조사는 현재 2차 조사까지 발표된 상태다. 교육감 선거 관심도와 지지 후보

결정 시기, 정보 획득 경로 등은 선거 이후 실시되는 3차 조사에 포함된다.

앞서 지난달 발표된 1차 조사에서는 교육감 선택 시 고려 요소로 정책·공약이 33.2%를 차지했고, 도덕성이 28.5%로 뒤를 이었다.

다만 과거 선거에서 교육감 후보 결정이 투표 직전 시기에 집중됐던 만큼, 이번 선거에서도 정책·공약 검증이 실제 후보 선택 과정으로 이어졌는지는 3차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문수 의원은 “중앙선거위 유권자의 의식조사에서 낮은 관심도와 투표 임박 시점의 후보 결정 등 교육감 선거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번 선거 조사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교육감 선거가 정책선거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전국소년체전서 금메달 87개 ‘전국 최다’

서울시교육청 선수단 40개 종목 1178명 참가 32개 종목서 메달 획득

서울시교육청 선수단이 제55회 전국소년체대회에서 금메달 87개를 획득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회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부상 예방·도핑 방지 교육도 확대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 87개, 은메달 63개, 동메달 77개 등 총 227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전 대회보다 33개 늘어난 수치로, 서울은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금메달을 따냈다. 올해 전국소년체

육대회는 지난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등 56개 경기장에서 열렸으며, 서울시교육청 선수단은 40개 종목에 학생선수 904명과 임원 274명 등 총 1178명이 참가했다. 특히 수영·육상·체조 등 기초 종목에서 전체 메달의 45.8%인 104개를 획득했다. 수영(경영·다이빙) 종목에서는 전체 금메달의 38.8%에 해당하는 35개의 금메달을 차지하며 다관왕을 다수 배출했다. 전체 40개 종목 중 32개 종목에서 메달을 따냈고, 18개 종목에서는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신기록도 잇따랐다. 사격 남중부 공기소총 단체전에서는 오산중·목동중·원촌중·거원중의 오지태·장승호·김종현·정승현 학생이 대회신기록을

수립했다. 수영 남초부 배영 100m(4학년 이하부)에서는 안주초 심태현 학생이 대회신기록을 작성했으며, 육상트랙 여중부 100m와 200m에서는 서울체중 왕서운 학생이 각각 대회신기록과 부별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또한 김예영·성채은·왕서운·최태연(이상 서울체중), 장민서·권재희(이상 안남중) 학생이 출전한 여중부 4x100m 계주에서는 부별 한국신기록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초 종목과 비인기 종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연계형 학교운동부 모델과 전임코치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학생선수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며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서울형 학교운동부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 고양시, 행주대첩 정신 담은 축제 마련

13~14일 행주산성 일대 공연·체험 프로그램 풍성

고양시를 대표하는 역사문화 축제인 제38회 고양행주문화제가 오는 13일과 14일 이틀간 행주산성 역사공원과 행주산성 일대에서 개최된다.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인 행주대첩의 승전 정신을 기리고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열리는 고양행주문화제는 올해 ‘일상과 꿈을 이룰 썬키들, 행주’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시민과 관광객을 맞는다. 다양한 공연과 체험, 참여형 프로그램이 마련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꾸며질 예정이다.

고양시에 따르면 고양행주문화제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역사문화 관광축제로 자리매김하며 7년 연속 경기대표관광축제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아름다운 한강 경관과 행주산성의 문화유산, 행주대첩의 역사적 의미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행주대첩 투석전 전국 박터트리기 대회’는 올해도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모집 시작 3일 만에 전 리그가 마감될 정도로 높은 인기를 입증했다.

밤이 되면 행주산성 일대 하늘은 화려한 빛의 향연으로 물든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행주 드론불꽃쇼’에서는 불꽃장치를 장착한 800여 대의 드론이 한강 수상불꽃놀이와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한다.

다채로운 공연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아울러 체험마당에서는 신기전 만들기, 목판인쇄 체험, 연꽃무늬 부채 만들기, 도자 체험, 캐리커처와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돼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 ‘서울런 예체능’ 클래스 확대 운영

12일부터 19일까지 참가자 모집

서울시가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예체능 진로 체험 기회를 넓히기 위해 대학 교육 자원을 활용한 무료 실습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서울시는 한양대학교와 협력해 미술·연극·실용음악·K-POP 안무를 배울 수 있는 ‘서울런 여름방학 예체능 클래스’를 운영하고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의 서울런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 겨울방학 시범 운영 당시 44명이 참여했던 것과 비교해 모집 규모를 60여 명으로 확대했다.

/이현진 기자

## 황인성 사총협 사무총장 연임

임기 2029년 6월까지 3년 미래전략실 신설 등 조직개편 재정위기 대응·수익사업 발굴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위기 속에서 사립대학의 자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사무총장(사진)이 연임과 함께 미래전략실 신설 등 조직 개편을 추진하며 사립대학 지원 체계 강화에 나선다.

사총협은 지난달 14일 열린 제35회 정기총회에서 황인성 사무총장의 연임을 의결하고 제4대 사무총장으로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 임기는 2026년 6월 8일부터 2029년 6월 7일까지 3년이다.

황 사무총장은 1999년부터 한국대학교



육협의회에서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으며, 2020년 사총협 사무총장으로 부임한 이후 네 차례 연속 연임, 협의회 실무총괄하게 됐다. 사총협은 이번 연임과 함께 조직 체계도 전면 개편했다. 기존 ‘사무총장’ 직위를 ‘사무총장’으로 변경하고, 조직을 기존 1팀·1연구소 체제에서 1연구소·2실 체제로 확대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미래전략실 신설이다. 미래전략실은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과 신규 수익사업 발굴을 전담한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2 | 해질 / 19:52

6월 9일 (화) 음력 : 4월 24일

수도권 날씨 16~28°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12/26, 동두천 13/27, 가평 12/27, 파주 12/26, 서울 16/28, 양평 14/28, 인천 16/25, 수원 16/27, 용인 16/27, 평택 14/28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시진핑 주석, 평양 도착... 7년 만의 북한 국민 방문 시작  
▲中, 핵탄두 620개 보유... 1년 만에 20개 늘어 SIPRI /사진 뉴시스

▲日, 한국에 ‘수산물 수입 재개’ 실무협의 제안... 韓정부는 신중  
▲美 의회, ‘해군 함정 해외 건조 금지’ 추진... 한·미 조선협력 변수

▲“앱으로 택시 부르는 평양, 무슨 일?”... ‘러시아 특수’에 살아난 北 경제  
▲이스라엘, 이란 보복 공습... ‘테헤란·타브리즈·이스파한서 폭발음’